

러시아연방(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 야말-네네츠자치구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순록과 가스의 대지〉



# 목 차

서문 .....	1
----------	---

## I. 종합개관

1. 개관 .....	4
1.1 위치 .....	4
1.2 일반개황 .....	5
1.3 자치구 기 .....	5
1.4 자치구 문장 .....	6
2. 자연환경 .....	7
2.1 지리 .....	7
2.2 기후와 식생 .....	8
2.3 주요 자원 .....	9

## II. 상세개관

1. 역사 .....	12
1.1 선사시대~제정러시아 .....	12
1.2 소비에트~러시아연방 .....	13
2. 정치 .....	16
2.1 행정부 .....	16
2.2 입법부 .....	18

<b>3. 경제</b> .....	<b>20</b>
3.1 경제 개황 .....	20
3.2 주요 산업과 투자 현황 .....	22
3.3 경제 현안 .....	25
<b>4. 사회</b> .....	<b>28</b>
4.1 인구 및 민족 구성 .....	28
4.2 교통 .....	30
4.3 행정 .....	33
<b>5. 원주민과 전통문화</b> .....	<b>37</b>
5.1 민족과 언어 .....	37
5.2 전통문화와 생활 .....	38
<b>6. 대한 관계</b> .....	<b>42</b>
<b>7. 결론</b> .....	<b>48</b>

## 서문

21세기에 들어와 지구온난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북극해 동결 기간이 점점 짧아짐에 따라 향후 북극 항로의 상시 이용에 대한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북극권 산업 개발 계획이 여러 나라에서 구상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북쪽 끝단에 있는 야말-네네츠자치구는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지역 중 하나이다. 지금 야말-네네츠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야말 LNG 프로젝트는 이곳에 묻힌 천연 가스를 북극항로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하려는 야심에 찬 계획으로서, 이것은 바로 향후 인류의 북극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이 이 프로젝트의 쇄빙 LNG선 건조를 수주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이 지역은 관심이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야말-네네츠자치구를 이 글에서는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인류가 북극 개발 문제에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태도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는 북극 항로와 북극 지역 개발에 관심을 보인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속해서 개발하려면 무엇보다도 동시에 이 지역의 보존이 필요하다. 이미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이란 개념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보존의 양립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로 등장했다. 즉, 보존을 전제하지 않는 개발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북극 보존을 위해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북극권 주민이 생존을 넘어 이 지역의 주체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곧 북극의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북극권 주민은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거주해온 원주민이거나 근대에 이곳으로 유입된 이주민으로서 이들은 이 지역의 개발과 보존을 위

해 노동, 관리,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지역 주체이다. 따라서 이들이 적절한 자연 및 사회 환경 속에서 건강한 주체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곧 북극이 보존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이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 가능한 개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다. 즉, 이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바로 북극권 개발과 보존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야말-네네츠자치구 주민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시장 개혁 이후 전 지역에 걸쳐 국가 차원의 사회변동을 겪었다. 처음에는 모스크바나 대도시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가 2000년대 이후에는 전 지역으로 퍼져 이제는 변경 지대에서도 큰 폭의 사회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야말-네네츠자치구는 가스 및 석유 등 지하자원 채굴 및 수출 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영향도 강하게 받는 지역이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와 같은 북극의 환경 변화와 산업 개발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면서 이 지역 사회변동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야말-네네츠자치구를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향후 인류의 북극 개발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 I. 종합개관

1. 개관

2. 자연환경

## I. 개 관

### 1.1 위치



[그림 1] 야말-네네츠자치구 위치1)

야말-네네츠자치구는 러시아 중북부에 있으며, 중심지역 위치는 동경 75°, 북위 67°이다. 야말-네네츠자치구는 전체적으로 서시베리아 저지대의 북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야말-네네츠자치구 서부는 우랄산맥 동쪽 경사면으로 되어 있다. 야말-네네츠자치구의 동쪽은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남쪽은 한티-만시자치구, 서쪽은 코미공화국, 북쪽은 북극해와 접해 있다. 야말-네네츠자치구 북쪽의 바다는 카라해이며, 최북단 야말반도와 북극해의 노바야제믈라섬 사이의 바다는 남카라해이다. 육상 면적은 76만 9,250km<sup>2</sup>로서 사하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하바롭스크변강주, 이르쿠츠크주에 이어 러시아연방에서 5번째로 넓고, 연방 총면적의 4.5%를 차지한다.

중심도시는 살레하르트시(51,972명(2022년))이지만 가장 큰 도시는 인구 10만 명가량 되는 노야브리스크시(108,376명(2022년))이다. 야말-네네츠자치구의 행정중심지인 살레하르트와 모스크바 사이의 거리는 2,436km이다.

## 1.2 일반 개황

[표 1] 야말-네네츠자치구 일반 개황<sup>2)</sup>

공식명칭	야말-네네츠자치구(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행정중심지	살레하르트(Салехард)
면적	76만 9,250km <sup>2</sup> (러시아 전체 면적의 4.5%, 연방주체 중 5위)
설립일	1930년 12월 10일(우랄주 소속)
인구	552,117명(2022년)
민족구성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네네츠인, 한티인, 타타르인 등
행정수반	아르튜호프 드미트리 안드레예비치(Артюхов Дмитрий Андреевич)
의회의장	얌킨 세르게이 미로노비치(Ямкин Сергей Миронович)
연방관구	우랄연방관구
경제지구	서시베리아 경제지구
지역총생산(GRP)	2조 7,681억 9,100만 루블(2020년)
주요산업	에너지산업(천연가스와 석유), 어업, 수산물가공업, 모피
주요자원	천연가스, 석유, 수산자원(어류)
주요도시	살레하르트, 노야브리스크, 노비 우렌고이, 나딤

## 1.3 자치구 기



[그림 2] 자치구 기

야말-네네츠자치구의 기는 밝은 파란색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로세로 비율은 3:2다. 아랫부분에 흰색, 파랑, 빨강의 수평선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수평선 그림 전체 넓이에서 사슴뿔 모양 흰색 그림의 넓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이다. 빨강, 파랑 선 너비는 기의 너비와 같고 장식을 구성하는 각 요소는 마름모 모양이다. 현재의 기는 1996년 12월 9일 채택됐다.

#### 1.4 자치구 문장



[그림 3] 자치구 문장<sup>4)</sup>

야말-네네츠자치구의 문장은 왕관이 쓰인 방패를 양쪽에서 두 북극곰이 지지하는 모습이다. 문장 방패의 파란 부분에는 흰색 순록이 그려져 있다. 검은 코와 검은 발톱, 붉은 혀의 북극곰은 눈 덮인 얼음 위에서 있다. 문장에 사용된 색은 흰색, 파랑, 빨강 등 3색과 노란(금)색이다. 파란색은 위대함과 아름다움, 하늘과 물(바다, 강, 호수)을 상징하고 노랑은 부와 정의, 관대함을 나타낸다. 흰색은 깨끗함, 독립, 흰 눈을 상징한다.

## 2. 자연환경

### 2.1 지리

야말-네네츠자치구 면적은 프랑스의 1.5배에 이른다. 북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들어온 바다가 육지를 동서로 양분하는데, 이 바다는 끝에 가서 두 갈래로 나뉘어 지도 전체로 보면 좁은 장화 모양처럼 생겼다. 영토의 절반 이상이 북극권 경계 북쪽에 위치해 대부분 영구 동토층이며, 남부의 삼림 지역을 제외한 3/4이 툰드라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 시베리아 저습지가 연속되고 반도의 대부분은 툰드라 지대로 이루어져 있지만, 남부에는 삼림과 툰드라의 중간지대도 있다. 북쪽에는 시베리아의 대표적 반도인 야말반도가 있다. 주요 하천은 오비강, 나딤강, 타스강, 푸르강 등이다. 전통적으로 강가에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현대에 들어와 도시로 발달했다. 크고 작은 습지는 이루 셀 수 없이 많고, 호수만 5,000개에 이른다. 유명한 호수로는 야라토, 네이토, 얄부토 등이 있다. 대부분 호수는 길이가 수백미터 정도 되지만 비교적 큰 것도 있다. 호수들은 주로 10월 말부터 열고 여름이 되어야 완전히 해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2.2 기후와 식생

야말-네네츠자치구는 북극 기후대로서 대륙성 혹은 극한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월 평균기온은  $-22\sim-26^{\circ}\text{C}$ 이며 7월 평균기온은  $4\sim14^{\circ}\text{C}$ 이다. 연 강수량은 200~400mm이나 극지 우랄지방은 600~700mm 수준이다. 겨울엔 눈 폭풍이 많이 발생하며 오로라를 동반하기도 한다. 식생은 툰드라, 삼림-툰드라 중간지대이고 삼림분포도는 21%이다. 지역 대부분이 툰드라 지대이고 남부나 강 인근에는 시베리아 활엽수, 전나무, 삼나무 등이 자란다. 남부의 식물 생장 기간은 80일 정도다. 이런 환경 때문에 토착 원주민은 농사보다는 순록 사육과 수렵, 어업에 종사했다.



[그림 4] 야말-네네츠자치구에서 발견된 매머드 (박물관 전시)<sup>5)</sup>



[그림 5] 살레하르트시에서 오비강을 건너 보이는 우랄산맥<sup>6)</sup>

## 2.3 주요 자원

야말-네네츠자치구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는 생산량과 매장량 면에서 러시아 최대 수준이다. 러시아에는 확인된 매장량 기준으로 석유 742억 배럴(102억 톤), 천연가스 44조 $m^3$ 가 있는데, 야말-네네츠자치구에서 연간 러시아 전체 석유생산량의 10% 안팎, 가스 생산량의 85~90%가량을 채굴한다.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석유는 노야브리스크시의 홀모고르스크와 수토린스크 매장지에서 주로 채굴된다. 주요 가스 매장지는 얀부르크를 포함, 노비우렌고이, 메드베지에, 빈가푸롭스크, 자폴랴르노예, 굽킨스크예 등이다. 야말반도와 그 앞의 카라해, 즉 야말반도와 노바야 제믈랴섬 사이의 바다(남

카라해)에 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자치구에는 석유, 가스 등 탄화수소 계열 외에 금, 구리, 아연, 납, 인회토, 석회석 등 광물자원도 적지 않다. 희귀금속인 보크사이트, 몰리브덴도 나온다. 이밖에 강, 호수, 바다 등 수량이 풍부해 연어를 비롯한 어류 등 수산자원도 풍부하다.



[그림 6] 샬레하르트시와 오비강

## Ⅱ. 상세개관

1. 역사
2. 정치
3. 경제
4. 사회
5. 원주민과 전통문화
6. 대한 관계
7. 결론

## 1. 역사

### 1.1 선사시대~제정러시아

시베리아 툰드라와 북부 타이가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중석기 시대부터이다.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3000년경 오비강, 타스강 변에 수렵민족이 나타났다. 기원전 1000~2000년대에는 남쪽으로부터 우랄어 계통의 민족이 이동해 북쪽으로 올라왔다. 이들은 순록을 주로 키웠는데 이들과 토착민이 결합해 발생한 민족을 네네츠인으로 본다. 또한, 같은 민족 계열의 에네츠인과 은가나산인도 등장했는데, 이들을 모두 사모예드인이라고 불렀다.

러시아 역사에서 한티인과 네네츠인에 대한 첫 기록은 11세기에 나타났다. 러시아인이 이곳에 정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 11세기경이었고, 1187년부터 오비강의 하류 지방이 노브고로드공국에 귀속됐다. 노브고로드 상인들은 이곳을 유그라(우크라) 땅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비교적 풍요로운 땅으로 여겨져 ‘야생의 동물원’, ‘곳간의 부드러운 잡동사니들’ 같은 별명이 붙었다.



[그림 7] 오브도르스크 요새 안의 사원<sup>8)</sup>

노브고로드가 몰락한 뒤에 이 지역은 노브고로드를 흡수, 승계한 모스크바 대공들의 소유가 됐다. 16세기 말부터 야말에는 카자크인이 새로운 요새를 건설했다. 1595년에 카자크 요새가 세워졌고 시베리아 북부 오비강가에 오브도르스크(지금의 살레하르트)라는 요새가 세워졌다. 1601년 타스강 하류에 만가제야가 생겼고 이곳은 세금 징수의 중심지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만가제야가 쇠락하자 오브도르스크가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했다. 오브도르스크는 1635년 ‘오브도르스크 관문’이란 명칭이 주어졌고 주민이 상주하게 되었다. 오브도르스크는 오랫동안 러시아 북부에서 러시아인이 거주하는 동쪽 경계 도시로 여겨졌다. 1730년 안나 이바노브나 여제는 이 지역에 방어선을 세울 것을 명령했다. 이로써 유그라 지방이 러시아제국 소속으로 확립되었는데 이것은 이 지역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네네츠인과 옴스크 북부 민족 간의 경제적 교역도 더 활발해졌다. 이는 제정러시아의 국력 강화로 이어졌다. 이 지역에 모피가 유통되면서 중요한 교역품으로 등장했다. 모피, 가죽, 새 깃털 펜, 수공예품 등이 유통됐고 야르마르카(정기 시장)가 섰다. 20세기 초에는 수산물 유통업이 발전했다. 내전 이후 새 정부는 이 지역에 생필품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북부지역 교역의 주요 공간으로 삼았다.

## 1.2 소비에트~러시아연방

혁명 이후 소비에트 시대 초기에 도서관, 보건소, 학교 등이 건설됐다. 1926년 토착민의 첫 소비에트가 선출됐으며, 1927년 토착민의 5개 구(라이온) 집행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1930년대 말까지 존속했다. 1930년 야말-네네츠민족구가 탄생했는데, 당시 이들은 우랄주에 속했지만, 나중에 옴스크주로 편입되었다. 1939년 인구조사 결과 야말-네네츠민족구의 인구는 4만 5,734명이었다. 여기에는 1만 5,438명의 유목민이 포함됐다.



[그림 8] 야말-네네츠자치구 2차 대전 희생자 추모탑<sup>9)</sup>

2차 대전 이전의 주요산업은 수산업, 순록사육(유목), 모피업 등이었다. 1930년대에 농업이 처음 발달하기 시작했다. 1940년에는 감자 363t과 야채 261t이 수확됐다. 1944년 8월 14일 튜멘주의 재편이 이루어져 한티-만시와 야말-네네츠자치구가 튜멘주에 편입됐다. 1949년에 야말, 라비트난기에 철도가 놓였고 전기, 전화, 우편 등의 통신수단이 생겼다. 1964년 지역 라디오방송이 시작됐고 1968년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됐다.

현재 야말-네네츠자치구는 러시아 에너지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이 문구는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현이다. 국가의 주요 연료 및 에너지 산업복합체로서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사명은 처음에 지질학적 연구와 탐사로부터 비롯되었다. 1958년 여름 살레하르트에 야말-네네츠 복합지질 탐사원정대가 창설되었고 탄화수소를 발견하기 위한 집중적인 탐색이 시작되었다. 1962년 4월 14일 타즈프스카야(Тазовская) 툰드라에서 최초로 가스 분출이 탐지되었다. 1964년에서

1966년까지 야말에서는 매장량이 3,500억m<sup>3</sup>에 달하는 굽킨스코예(Губкинское) 산지와 세계에서 가장 큰 우렌고이스코예(Уренгойское) 산지를 포함해 5개 이상의 대형 산지가 발견되었다. 1967년에는 메드베지예(Медвежье) 산지를 포함해 세 개의 산지가 발견되었다. 다음 해에도 세 개의 석유 및 가스 산지가 발굴되었다. 1972년에는 메드베지예 산지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랄로 흘러갔다. 1978년에는 우렌고이-나딤(Уренгой-Надым) 가스 파이프라인이 가동되었다. 빈가푸라(Вынгапура) 가스가 우렌고이-튜멘-첼랴빈스크 가스 본관에 합류되었다. 1980년대 초에는 수르구트-우렌고이간 철도 및 가스관이 부설됐다. 바야흐로 야말의 가스와 석유가 현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툰드라와 타이가에 끝없이 펼쳐진 작은 마을들의 이름(나딤(Надым), 노비 우렌고이(Новый Уренгой), 타르코-살레(Тарко-Сале), 노야브리스크(Ноябрьск))는 이제 전 세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2. 정치

### 2.1 행정부

야말-네네츠자치구 구지사는 2010년부터 최근 2018년 5월까지 코빌킨 드미트리 니콜라예비치였는데, 그가 푸틴 집권 4기 행정부의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2018년 5월 29일 부구지사였던 아르튜호프 드미트리 안드레예비치가 임시 구지사가 되었다. 장기간 야말-네네츠 자치구를 이끌었던 코빌킨 전 구지사와 아르튜호프 임시 구지사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그림 9] 코빌킨 드미트리 니콜라예비치 전 구지사<sup>10)</sup>



[그림 10] 아르튜호프 드미트리 안드레예비치 임시 구지사

코빌킨 드미트리 니콜라예비치(Кобылкин, Дмитрий Николаевич)는 2010년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추천하고 자치구 의회가 승인하여 처음 구지사가 되었다. 그 후 2015년 푸틴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지사에 재임명되어 모두 8년간 야말-네네츠자치구를 이끌었고, 2018년 5월 현재 러시아연방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코빌킨 전 구지사는 1971년 6월 7일생이며, 아스트라한시의 엔지니어 집안에서 태어났다. 우뎀스키석유대학에서

광산 지구물리학을 전공했으며 1993년에 졸업했다. 켈렌지크시에서 관련 기술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2003년 우랄국립아카데미에서 행정학으로 학위를 받았다. 2002년 10월 야말-네네츠자치구의 푸롭스키군에서 제1부행정관(부군수)이 됐고 2005년 10월 군수가 되면서 관료의 길을 걸었다.

아르튜호프 드미트리 안드레예비치(Дмитрий Андреевич Артюхов)는 1988년생이며, 노비 우렌고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2005년 튜멘국립대학교에 입학했고, 2009년 동일 대학교 경제학 석사 과정에 입학하여 2012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야말-네네츠자치구 구지사를 위해 일하다 2016년부터 ‘경제 발전 및 투자 유치’분야 부구지사가 되었다. 부구지사로 역임하면서 그는 이곳에서 가장 큰 회사들(가스프롬(Газпром), 로스네프티(Роснефть), 가스프롬 네프티(Газпром нефть), 노바테크(НОВАТЭК), 트란스네프티(Транснефть), 시부르(СИБУР), 루코일(ЛУКОЙЛ) 등)과의 협상 및 투자 협약 체결을 감독했다. 2018년 5월 전 구지사가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되면서 아르튜호프가 야말-네네츠자치구 임시 구지사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지사로 재임 중이다.



[그림 11] 야말-네네츠자치구 행정부<sup>11)</sup>

## 2.2 입법부



[그림 12] 야킨 세르게이 미로노비치(Ямкин Сергей Миронович)<sup>12)</sup>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입법부는 ‘자치구 국가두마’로 불리며 22명의 두마 의원이 있다. 지자체(군)별로 1명씩 선출된 지역구 의원이 11명, 자치구 전체에서 정당 명부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이 11명이다. 2015년 선출된 두마 의장은 야킨 세르게이 미로노비치이다. 그는 1968년 12월 7일 출생했다. 2002년 튜멘국립농업아카데미를 졸업했고, 2013년 굽킨러시아국립석유가스대학을 졸업했다.

현재 자치구 국가두마 의원의 주요 소속 정당은 통합러시아(Единая Россия)이며, 그 외 러시아자유민주당(Либераль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и) 소속 2인, 러시아연방공산당(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과 정의러시아(Справедливой России) 소속 각 1인이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볼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당의 정책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1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11명의 소속 정당별 명단은 아래 [그림 13]와 같다.

[그림 13] 야말-네네츠자치구 국가두마 의원 구성<sup>13)</sup>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주의회는 ‘자치구 국가두마’로 불리며 22명의 두마 의원이 있다. 각 지자체(군)별로 1명씩 선출된 지역구 의원이 11명, 자치구 전체에서 정당명부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이 11명이다. 정당별로는 통합러시아당 18명, 러시아자민당 2명, 공산당1명, 정의러시아당 1명이다. 연방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우세가 절대적이다. 지역구 의원은 대부분 통합러시아당이다. 비례대표로는 공산당, 러시아자민당, 정의러시아당 의원들이 있지만 의석수는 미미한 편이다. 두마 의장은 얄킨 세르게이 미로노비치(Ямкин Сергей Миронович)이 2015년 9월 30일부터 현재 2021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 3. 경제

### 3.1 경제 개황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주요 산업은 석유, 천연가스, 기타 광물자원의 채굴이며, 또한 화력과 수력을 이용한 발전(發電) 등이다. 그 외의 주요 산업으로는 모피업, 모피용 짐승사육 등이 있다. 주민들은 주로 고기잡이나 순록과 같은 모피수류(毛皮獸類) 사육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치구 영토에는 약 60만 두의 순록이 있다. 주요 수산물로는 철갑상어, 송어, 붕장어, 연어 등이 있으며, 전 세계에 연어과(科) 민물고기 어획량의 1/3을 공급한다. 이 때문에 어류 가공 및 통조림 제조업이 발달했다.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지질과 기후로 산업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 농산물 중에는 감자, 양배추가 주로 재배된다. 삼림 지역에서는 벌목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야말-네네츠자치구에는 약 77만km<sup>2</sup>에 55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1km<sup>2</sup>에 약 0.72명의 주민이 있는 셈이다.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지역 총생산은 2008년 7,200억 루블에서 2020년 2조 7,681억 9,100만 루블로 증가했다.

야말-네네츠자치구에서는 러시아 천연가스 총생산량의 91%, 러시아 석유 및 가스콘덴세이트의 14%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야말-네네츠자치구는 러시아 주요 에너지 자원의 54%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동시에 아직도 이곳의 수많은 지역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가스 생산 기업체는 가스프롬이며(Газпром), 야말-네네츠자치구의 모든 가스 생산량의 약 90%를 이 기업이 생산한다. 30개 이상의 기업이 석유 및 가스콘덴세이트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주요 석유채굴 기업체들은 가스프롬네프티(Газпром нефть), 가스프롬네프티-노야브리스크네프테가스(Газпромнефть-Ноябрьскнефтегаз), 가스프롬네프티-무

라블렌코(Газпромнефть-Муравленко), 로스네프티(Роснефть) 등이다.

오늘날 야말-네네츠자치구는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미래의 장기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야말-네네츠자치구 정부가 수립한 2020년까지의 발전 전략은 연료 및 에너지산업 복합체의 개발을 현대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지역 경제 분야와 연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곳의 세계적인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는 야말반도와 카라해 대륙붕에 매장된 가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11개의 가스 및 15개의 석유 및 가스콘덴세이트 산지가 있다. 대륙붕에는 50조 5천억m<sup>3</sup>의 가스와 50억 톤 이상의 액체 탄화수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야말-네네츠자치구의 또 다른 주요 사업은 우랄 북극에 새로운 광산 생산지를 건설하여 이웃 지역에 야금 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현재 우랄 북극에서는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및 금이 풍부하게 매장된 산지들을 개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산업 총 가치를 2,200억 달러로 추산한다.

야말-네네츠자치구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이곳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경제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즉, 지하자원 채굴 산업 외에 바로 원주민의 전통적인 경제가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에 들어와 야말-네네츠자치구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순록 떼를 보유하고 있다. 1990년에는 49만 6천 마리가 있었고, 2000년에는 50만 1천 마리가 있었으며, 2010년에는 66만 마리로 불었다. 2011년 1월 1일 시점 순록의 44.9%만이 농업 기업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보다는 가족 단위 경영 형태로 더 많은 순록이 관리되고 있다. 2010년 1월 1일 시점 3,132가구(14,704명)가 순록을 키우고 있다. 2010년 1월 1일 시점 유목민 가구의 다수(2,206가구 11,023명)가 타좁스키군(Тазовский район)과 야말스키군(Ямальский район)에 있다. 소비에트 시대부터 일정한 주거지에 정착하도록 정부는 캠페인을 계속했지만, 이들은 유목민의 삶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다. 1984년에는 2,080개의 농장(약 10,600명)이 유목 생활을 했다.

야말-네네츠자치구에서는 또한 어업이 발전했는데, 경제 혼란기였던 1990년대에도 어획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91년에는 6,688t, 2001년에는 6,438t의 어업 생산량을 기록했다. 오비강 연안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어종의 1/3이 잡힌다. 약 8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이 지역 전체의 10분의 1은 자연 보호 구역이다. 현대적인 산업과 전통적인 경제는 야말 영토에서 평화롭게 공존한다. 원주민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지사와 자치구 정부는 최선을 다한다.

### 3.2 주요 산업과 투자 현황

2016년 시점 야말-네네츠자치구 경제에서 산업(유용 광물 채굴, 제조업, 전기, 가스, 수자원의 생산 및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63.4%로 압도적이다. 건설업은 5.3%, 상업은 22.7%, 운송 및 통신은 4.1%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 비해 2016년 산업과 상업의 비중은 각각 1.5%p와 0.9%p 감소했다. 대신 건설업은 0.7%p,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 분야는 1.9%p 증가했다. 야말 통계청에 따르면, 유용 광물 채굴업은 지역 총생산량의 52.1%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과제의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야말-네네츠자치구 예산은 주로 에너지 자원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고정자본투자로는 2018년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고정자산 투자액이 1조 루블을 넘겼다. 이는 러시아 북극 지역의 모든 투자액의 6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9년에는 8,648억으로 감소했다. 투자 분야로는 주거, 주거용을 제외한 건물과 구조물 및 토지개발, 기계 장비 및 차량, 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그림 14] 야말-네네츠자치구 경제 구조(2020년 기준)<sup>14)</sup>

야말-네네츠 자치구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주요 공급원이다. 기술발달로 과거 불가능했던 지하 4,500m 깊이에서의 자원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혹독한 기후지대로 알려진 이 지역의 가스채굴이 가능해지면서 러시아 가스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약 90% (전 세계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2020년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가스 생산량은 5,580억 입방미터에 달한다.

[표 2. 야말-네네츠 자치구 천연가스 생산량]

(단위: 백만 평방미터)

년도	2017	2018	2019	2020
천연가스 생산량	556,948	591,314	604,019	558,033

출처: <https://tumstat.gks.ru/storage/mediabank/>(검색일:2022.7.3)

1)

[http://energy.mofa.go.kr/bbs/view.jsp?seq=2477&code=00010005&board\\_code\\_1=&board\\_code\\_2=00070000&part=&page=2&item=&page\\_size=20&gubun=Y](http://energy.mofa.go.kr/bbs/view.jsp?seq=2477&code=00010005&board_code_1=&board_code_2=00070000&part=&page=2&item=&page_size=20&gubun=Y)(검색일:2021.10.25)

2021년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가스 예상 생산량은 6,399억 입방미터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년과 비교해 21% 증가한 수치이다. 이곳에서는 238개의 가스 및 유전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에 100곳은 현재 개발 중이고 138개 곳은 탐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17개의 지질 탐사 및 탄화수소 원료 생산을 위해 하층토를 사용할 권리(라이선스)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295개는 육지에 22개는 카라해 부근에 위치해 있다.<sup>2)</sup>

코트라(KOTRA)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종합하면 러시아 전역의 가스는 전체 매장량이 236조 1,000억m<sup>3</sup>이며 이 가운데 160조 3,000억m<sup>3</sup>은 육지에, 75조 8,000억m<sup>3</sup>은 해저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다. 야말-네네츠 자치구에서 생산된 가스는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이 관장한다. 다른 기업들은 가스프롬의 통제 아래 있다. 가스프롬이 경영권을 지닌 자회사로는 야말가스인베스트(Yamalgazinvest)가 있다. 가스프롬의 폴란드 합작사 유로폴가스는 야말-유럽 파이프라인(YEP)의 폴란드 부분을 운영한다. 이 지역 대표 기업은 1994년 설립된 노바텍(노바핀 인베스트)사로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가스전 사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가스기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스프롬이 야말-네네츠 자치구에 투자한 금액은 7,700억 루블에 달한다.<sup>3)</sup> 이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47조3천억 입방미터, 석유는 48억 톤, 가스 응축수는 25억 톤으로 추정된다.<sup>4)</sup> 가스 및 유전 개발은 앞으로 지속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중요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석유 생산량은 3,700만 톤에 달하며 2017년~2020년 최근 4년간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야말-네네츠 자치구는 러시아 석유 생산의 약 14%를 차지한다.

[표 3. 야말-네네츠 자치구 석유 생산량]

(단위: 백만 톤)

년도	2017	2018	2019	2020
석유 생산량	1,633,382	1,791,825	2,025,508	2,453,551

2) <https://www.yanao.ru/presscenter/news/58389/>

3) <https://www.gazprom.ru/press/news/2021/april/article526942/>

4) <https://tass.ru/ekonomika/6341024>(검색일:2021.11.07.)

출처: <https://tumstat.gks.ru/storage/mediabank/>(검색일:2022.7.3.)

러시아 내 석유는 서부 시베리아·우랄 볼가지역·북서지역·극동 지역에 집중 매장돼 있다. 이중 러시아 우랄 지역, 특히 야말-네네츠 자치구 내 넓은 지역에 매우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어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우랄 지역은 러시아 석유의 70%, 천연가스의 91%가 매장돼 있는 자원의 보고이다. 이 지역은 중동 페르시아만에 이어 두 번째로 석유가스 매장량이 많은 지역이다. 우랄 지역의 석유매장량은 380억 톤인데, 이는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68%에 달한다.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야말 반도는 서부 시베리아에서 가장 각광받는 유전 지대이다. 이곳에서 26개의 가스 매장지가 발견됐고 조사 결과 10조m<sup>3</sup>의 가스, 2억 5,000만 톤의 액화가스, 2억 9,100만 톤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sup>5)</sup>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생산이 많다 보니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액도 크다. 튜멘주 내 두 개의 자치구(한티-만시, 야말-네네츠)가 내는 세금은 연방재정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모스크바시가 납부하는 세금과 맞먹을 정도로 러시아연방의 세원에서 비중이 컸다.

### 3.3 경제 현안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최대 경제 현안은 에너지 개발, 그중에서도 야말 LNG 프로젝트이다. 야말 LNG 프로젝트는 러시아 우랄 동부 지역 시베리아의 가스 생산을 발전시키는 차세대 에너지개발 계획이다. 야말반도는 카라해를 향해 남북으로 뻗어 있으며 면적은 12만 2,000km<sup>2</sup>, 길이 750km, 너비 140~210km이다. 서쪽은 바이다라츠카야만, 동쪽은 오비만(灣)과 접한다. 서쪽은 카라해(海), 북쪽은 말리기나해협을 건너 벨리섬, 동쪽은 오비만을 중간에 두고 기단 및 타즈반도에 연결되어 있다. 야말반도 육상은 물론 반도 앞의 남카라해는 새로운 자원의 보고로 주목받았다. 여기에는 천연가스 10조 4,000억m<sup>3</sup>(=10.4tcm)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매장량도 50억 배럴로 추정된다. 러시아 우랄 지역의 석유와 가스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야

5) 러시아 석유·가스자원 현황조사(부존현황 편) 2008.3.6. KOTRA

말반도는 새로운 검은 황금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연료에너지 위원회는 러시아 에너지부에서 마련한 '2020년 야말-네네츠자치구 및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의 북부지역 내 탄화수소 매장지 개발 프로그램(2035년 야말반도 및 인접 해상 매장지 개발 프로그램 포함)'을 2010년 8월 5일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러시아 국내 석유 가스 수요를 충당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야말-네네츠자치구와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주 북부지역에 새로운 석유 가스 생산 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시베리아와 불가지역의 생산 감소를 보충한다는 것인데 야말반도와 인접 해상지역은 가스 생산 센터로, 야말-네네츠자치구와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주의 북부는 액체 탄화수소(석유) 생산 센터로 각각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 석유 가스 수송 인프라 확충 △ LNG 생산 및 수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야말-네네츠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북부지역 광구에서 추가로 석유 7,800만t, 가스컨덴세이트 3,600만t, 야말반도에서 천연가스 140bcm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수를 추가 확보하여 금속, 기계제작, LNG 운반선과 북극항로에 투입될 쇠빙선 건조 등 다양한 관련 산업 발달도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경제 효과로는 야말-네네츠자치구와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북부지역을 합해 12조 루블, 야말반도와 인접 해상광구 개발로 36조 루블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료에너지 위원회는 야말-네네츠자치구 전체의 신규 매장지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대해 광물채굴 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네네츠자치구와 야말-네네츠자치구 일부 지역에 대해 누적생산량 기준 1,500만 톤 또는 7년간 광물채굴 세를 면제해 왔다. 쿠드리야소프 에너지부 차관은 야말-네네츠자치구 및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북부에 236곳의 탄화수소 매장지가 발견됐으나 이 중 63개 매장지에서만 상업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흑독한 기

후여건 및 인프라 부재 등으로 인해 현재의 조세제도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없으면 이번에 승인한 프로그램을 추진해도 개발과 수익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야말-네네츠자치구에서 전망이 밝은 다양한 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추세도 나타나고 있지만, 반면에 몇 가지 이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원이 많지 않으며, 따라서 선진적인 생산 기술을 개발할 힘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지역적 특징으로서 무엇보다도 지역 개발 수준이 불균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여러 영역에서 야말-네네츠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변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연료 및 에너지 유용 광물 채취에 기초한 독점적인 경제구조에 의존하고 있어서 다른 경제 분야는 취약하다는 점 (2) 낮은 수준의 과학 혁신 기술 개발 (3) 생산된 제품의 낮은 경쟁력 (4) 고정 자산의 현저한 감가상각 (5) 탄화수소 시장 상황에 종속되어 좌지우지되는 투자 위험성 등이다.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가장 중요한 단점은 석유 및 가스 시장은 번창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다른 새로운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원료 산업을 제외하고 다른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기존 채굴 산업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필요한 물자를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 경제가 종속될 수밖에 없게 한다. 실제로 야말-네네츠자치구는 광물을 팔아 돈을 벌고 있지만, 이러한 자금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즉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에서는 자치구의 자립적인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오늘날 이것은 경제의 다각화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고, 야말-네네츠자치구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능력을 키울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연료 및 에너지 자원의 채굴뿐 아니라 기존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문 영역이나 첨단 과학이 집약된 산업 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4. 사회

### 4.1 인구와 민족 구성

20세기 후반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러시아 인구는 1990년대 개혁기에 들어와 1992년을 기점(1억 4,833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 전후에는 연간 인구감소 규모가 약 100만 명에 달하기도 했는데, 점차 감소세가 완화되다가 2008년(1억 4,190만 명)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리하여 2022년 시점 러시아 인구는 1억 4,580만 명을 기록 중이다. 오늘날 러시아의 인구학적 상황은 1990년대부터 진행된 급속한 시장개혁과 이로부터 발생한 여러 과도기적 사회 현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단기간에 약 600여만 명의 인구가 줄었는데,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이 아니라 사회적 과도기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인구가 대규모 감소한 것은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인구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자연증가(및 감소)와 인구의 이주(유입과 유출)로 결정된다. 러시아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것은 주로 낮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로 인한 자연감소로부터 기인하였다. 시장 개혁기에 사망률이 높아지고 평균수명이 저하된 원인과 배경으로는 경제위기,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꼽는다.

[표 4.]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인구 변화 추이(단위: 천 명)<sup>15)</sup>

	90	95	00	05	10	15	20	21	22
야말-네네츠	489	487	498	517	522	534	544	547	552

야말-네네츠자치구는 1990년 약 49만 명이었던가 1990년대 인구가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2000년대부터 다시 늘어나 2022년 현재 55만

2,117명이 되었다. 1990년과 비교하면 약 6만 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따라서 러시아 전체 인구 추이처럼 인구 감소를 극심하게 겪지는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련 시기이던 1930년 소비에트 정부는 네네츠인을 위해 자치구를 신설했다. 이후 외부에서 다양한 민족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2010년 가장 최근 인구조사에 따르면, 야말-네네츠자치구에는 약 100여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네네츠인은 자치구 인구의 약 5~6%에 불과하고 러시아인이 60%가 넘는다. 이외에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한티인, 아제르바이잔인, 바시키르인, 코미인, 몰도바인, 셸쿠프인 등이 거주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네네츠인 5.9%, 러시아인 61.7%, 우크라이나인 9.7%, 타타르인 5.6%, 셸쿠프인 0.4%, 기타 민족 13.8%이다.



[그림 15] 살레하르트 신시가지<sup>16)</sup>

러시아에 네네츠인은 4만여 명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야말-네네츠자치구에는 약 3만여 명이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유목

생활을 하는 네네츠인이 자치구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 추산은 힘들다. 캅카스, 트랜스 캅카스, 중앙아시아 민족은 약 35,000명이며, 인구의 7%를 차지한다. 이들은 2002년 인구조사 때 파악된 25,000명에 비해 약 1.4배 증가했다.

[표 5.] 야말-네네츠자치구 주요 민족 구성 변동(1939~2010년 센서스 기준)<sup>17)</sup>

센서스 시기	1939	1959	1970	1979	1989	2002	2010
네네츠인	13,454 (29.3%)	13,977 (22.4%)	17,538 (21.9%)	17,404 (11.0%)	20,917 (4.2%)	26,435 (5.2%)	29,772 (5.9%)
한티인	5,367 (11.7%)	5,519 (8.9%)	6,513 (8.1%)	6,466 (4.1%)	7,247 (1.5%)	8,760 (1.7%)	9,489 (1.9%)
코미인	4,722 (10.3%)	4,866 (7.8%)	5,445 (6.8%)	5,642 (3.6%)	6,000 (1.2%)	6,177 (1.2%)	5,141 (1.0%)
셀쿠프인	87 (0.2%)	1,245 (2.0%)	1,710 (2.1%)	1,611 (1.0%)	1,530 (0.3%)	1,797 (0.4%)	1,988 (0.4%)
러시아인	19,308 (42.1%)	27,789 (44.6%)	37,518 (46.9%)	93,750 (59.0%)	292,808 (59.2%)	298,359 (58.8%)	312,019 (61.7%)
우크라이나인	395 (0.9%)	1,921 (3.1%)	3,026 (3.8%)	15,721 (9.9%)	85,022 (17.2%)	66,080 (13.0%)	48,985 (9.7%)
타타르인	1,636 (3.6%)	3,952 (6.3%)	4,653 (5.8%)	8,556 (5.4%)	26,431 (5.3%)	27,734 (5.5%)	28,509 (5.6%)

## 4.2 교통

야말-네네츠자치구에서는 도로, 철도, 내륙 수로, 항공(교외 및 지자체 간 교통)을 통해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의 주요 현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망 확대이다. 전통적으로 지질이 도로건설에 적합하지 않으며, 영토 면적이 크지만 인구밀도는 낮아 구석구석 교통망을 깔기 어려운 환경이다. 총 도로의 길이는 약 4,000km이며 그 대부분인 3,200km는 기업도로이고 나머지는 일반도로이다.

야말-네네츠자치구에는 노야브리스크(Ноябрьск), 노비 우렌고이(Новый Уренгой), 나딤(Надым), 살레하르트(Салехард), 라비트난기(Лабитнанги), 구빈스키(Губкинский), 무라블렌코(Муравленко) 도시의 승객을 운송하는 9개의 지방 교통회사가 있다. 이들 회사는 80개 이상의 정기 버스 노선과 4개의 정기 지방 간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용 차량과 개인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노선의 승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6] 살레하르트시 오비강 선착장<sup>18)</sup>

야말-네네츠자치구에서는 역사적으로 강과 바다를 이용한 수상교통이 발달했다. 중심도시 살레하르트 역시 강가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다. 하지만 대부분 강이 얼지 않는 봄에서 여름에만 이용할 수 있어서 수상교통은 한계가 많다. 남부에서는 길어야 4개월, 북부에서는 단 2개월만 수상교통이

가능하다.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수로에는 내부 간, 그리고 내외부를 잇는 약 90개의 수상 운송 회사가 운행하고 있다. 2016년 수로를 통한 지역 간 여객 운송의 주요 노선은 다음과 같다. △ 베레조보(Березово) - 살레하르트(Салехард) - 무지(Мужи) - 살레하르트 - 베레조보, △ 옴스크(Омск) - 토볼스크(Тобольск) - 한티-만시스크(Ханты-Мансийск) - 살레하르트(Салехард) - 한티-만시스크 - 토볼스크 - 옴스크.

철도망 역시 도로와 비슷한 이유로 발달하지 못했는데 현재 주민이 사는 지역 가운데 철도가 깔린 곳은 1/3에 불과하다. 살레하르트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인 라비트난기는 오비강 건너편에 있다. 기록에 따르면 1949~1953년에 살레하르트-이가르카 철도 건설이 추진됐으나 공사에 동원된 죄수 수천 명의 목숨만 잃은 채 실패했다.

하지만 현재 시베리아 과학분석센터와 함께 야말-네네츠자치구 행정부의 ‘러시아철도’는 철도 및 도로망과 통신 시스템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야말 북극과 우랄의 대형 산업 센터를 연결할 목적으로 나딤행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야말반도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저압 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산업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야말반도에서는 LNG 플랜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교통이 급속히 발달했다. 여객, 화물, 우편, 의료 서비스 역시 항공 교통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특히 고립된 오지는 항공교통이 필수적이다. 현재 야말항공과 튜멘항공이 대표적인 지역 항공사다.



[그림 17] 살레하르트-이가르카 철도 건설에서 희생된 자들을 추념하는 기관차 조형물<sup>19)</sup>

### 4.3 행정

야말-네네츠자치구에는 2017년 1월 시점 총 55개의 지방자치체가 있다. 7개의 군(муниципальный район), 6개의 도시(городский округ), 6개의 도시형 부락(городское поселение), 36개의 농촌(сельское поселение)이 있다. 도시 인구는 약 45만 명, 농촌 인구는 약 10만 명이다.

[표 6.] 야말-네네츠자치구 주요 도시와 인구(단위: 명 / 2022년 1월 시점)<sup>20)</sup>

주요 도시	인구
살레하르트	51,972
노비 우렌고이	118,115
노야브리스크	108,376
나딤	45,584
무라블렌코	31,445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주요 도시는 행정중심도시인 살레하르트와 나딤, 노비 우렌고이, 노야브리스크 등이며 모두 석유나 가스 매장지로 유명하다. 살레하르트는 네네츠어로 ‘꽃 위의 집’이라는 뜻이고, 과거에는 오비 강변의 도시라는 의미로 오브도르스크라고 불렸다. 북위 66°32′, 동경 66°36′에 있으며 정확하게 북극권 한계선(artic circle)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도시이다. 살레하르트 인구는 1989년 인구센서스에서 32,334명, 2002년에는 36,827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48,500명으로 늘었다. 시의 문장에는 사모예드 개가 그려져 있다.



[그림 18] 살레하르트시 문장<sup>21)</sup>

살레하르트의 역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역사상 이 지역 최초의 중심도시인 오브도르스크는 1595년에 세워졌다. 예르마크의 시베리아 원정대를 따라온 러시아인들이 정착촌을 만든 것이다. 마을은 오비 강변에 자리했고 강 이름을 따서 오브도르스크로 불렸다. 이 마을 주변 지역은 제정러시아 때 오브도르스키크라이, 또는 오브도리야로 불렸다. 모스크바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외진 마을은 제정러시아와 소련 시대에는 유배지이기도 했다. 1930년 12월 10일 새로운 야말-네네츠민족구의 중심지가 되었고 1933년에 살레하르트로 개칭됐으며, 1938년에는 도시로 승격되었다.



[그림 19] 살레하르트시에 있는 예술 학교<sup>22)</sup>

야말-네네츠자치구의 교육 시스템은 안정적이며 오늘날에는 367개의 국립, 지방, 사립 교육 기관이 있다. 유목민 지역에는 17개 유치원과 5개 학교를 포함하여 22개의 교육 기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는 물론 민족종교와 민족 문학,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야말-네네츠자치구에서는 유목민 취학 전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취학 전 교육을 받는 아동의 수가 늘고 있고, 기숙학교를 사회문화 센터로 전환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어로 된 새로운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다.

장애 학생과 정신 지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연방정부 교육 기준에 맞춰 개편되고 있다. 89명의 장애 아동이 공부하고 있는 원거리 교육 센터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 전문 단체는 장애인 직업 교육을 위한 중등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의 북극 지역은 살기 편한 곳이며, 이곳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위한 용도로 쓰인다. 기본 재정의 80% 이상이 주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야말-네네츠자치구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적인 학교, 병원, 스포츠 시설(주로 외진 지역)이 건설되고 있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야말-네네츠자치구는 어린이들의 여름 휴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야말 청년의 70% 이상이 매년 여름 최고의 건강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30개가 넘는 사회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그림 20] 살레하르트시 공항<sup>23)</sup>

## 5. 원주민과 전통문화

### 5.1 민족과 언어

네네츠인은 지금보다 남쪽의 시베리아 중부에서 북상하여 카닌반도와 타 이미르반도, 오비강과 예니세이강 하류까지 달아 정착촌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다른 일부는 수렵에 의존했다. 이들은 농사에도 이용되고 사냥에도 도움이 되는 사모예드 개를 길렀는데, 나중에 여기에 도착한 러시아인이 북극권 기후에 잘 적응한 사모예드 개를 북극 탐험에 데리고 다녔다. 이후 사모예드 개는 순록과 함께 네네츠인의 상징이 되었다.

러시아어에서 ‘사모(self)’와 ‘예드(eat)’를 합치면 ‘스스로 먹는 자’로 해석된다. 시베리아 원정 당시 러시아인들은 네네츠인이 순록의 피를 마시는 장면을 봤다. 이 때문에 사모예드인은 러시아에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됐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소련에서 소수민족을 존중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모예드란 표현은 사라졌고 ‘사람’이라는 뜻의 ‘네네츠’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인간’을 의미하는 ‘니에네치’라는 단어를 사용, 현재의 네네츠로 개칭됐다.

현재의 네네츠인은 사모예드인의 한 일파를 말하는 것으로 네네츠인은 사모예드계 민족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집단이다. 과거에는 사모예드, 유라크, 유라크 사모예드 등으로 불렸다. 옛 러시아 문헌에 보면 사모예드는 네네츠, 응가나산, 예네츠, 셸쿠프족 등 사모예드 계통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을 통칭하는 뜻으로 쓰였다.

네네츠인은 거주지와 주요 생활양식에 따라 더 북쪽에 거주하는 툰드라 네네츠, 남쪽 삼림지대에 사는 삼림 네네츠(또는 한데야르)로 구분된다. 이들은 언어로도 구분된다. 툰드라 네네츠는 축차인이나 코랴크인과 마찬가지로

로 순록 떼를 몰고 유목 생활을 했으며 생활은 전적으로 순록에 의존한다. 네네츠인은 씨족 중심 사회를 형성했다. 네네츠인에게는 대지와 자연을 신격화하는 샤머니즘 또는 애니미즘이 있었다. 네네츠인의 샤먼은 타디바(Tadibya)라고 불렸다. 네네츠인에게 북극곰, 순록 등은 중요한 대상이다. 최근에는 네네츠인과 인근 코미공화국의 이즈마인의 혼혈로 태어난 야란(Yaran)인이 네네츠인의 제3그룹을 형성했다. 원주민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겼고 식물과 동물의 모습을 민족의상에 넣었다.

네네츠어는 우랄어족에 속한다.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헝가리어 등과 유사하다. 네네츠어는 툰드라 네네츠어와 삼림 네네츠어로 구분된다. 서구에서는 방언 정도로 이해하지만 사실 두 언어 간에 공통점이 거의 없어 다른 언어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툰드라 네네츠어는 사용 인구가 3~4만 명 정도다. 사용 지역은 카닌반도에서 예니세이강 정도까지 퍼져 있다. 삼림 네네츠어는 불과 1,000~1,500명 정도가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지역은 아간, 푸르, 라민, 나딤강 인근이다. 툰드라 네네츠어는 소수민족 언어로 취급되면서 1930년대부터 기록으로 남았지만, 삼림 네네츠어는 그러하지 못해 겨우 1990년대에 와서 기록되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기록물도 많지 않다.

두 네네츠어 모두 역사상 러시아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또 툰드라 네네츠어는 서쪽으로 접한 코미 언어와 북부 한티어의 영향도 받았다. 삼림 네네츠어는 동부 한티어와 섞였다. 네네츠어 가운데 러시아어로 수용되어 남은 것은 3단어 정도다. 네네츠라는 이름, 응가나산이라는 민족이름, 그리고 파르카라는 전통 외투의 이름이다. 파르카는 사슴이나 개 가죽 또는 모피로 만든 모자(후드)가 달린 긴 재킷이다.

## 5.2 전통문화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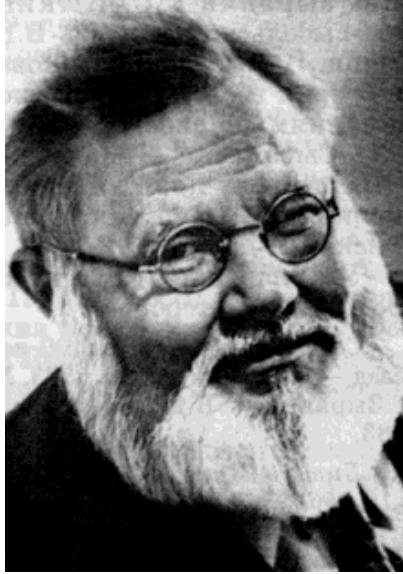
네네츠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독특한 전통과 풍습을 간직하고 있다.

네네츠인은 이를 ‘툰드라의 법칙’이라 부른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전통 유목을 하는 네네츠 가정에는 크고 작은 수십여 대의 썰매가 있다. 어린이들은 대개 일찍부터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된다. 남자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형들을 도와 순록을 몰고 순록을 잡는 올가미 던지는 연습을 한다. 남자아이는 10살도 되기 전에 자신만의 순록을 정하고 자기 썰매를 몬다.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지키는 네네츠 유목민은 이동식 텐트 ‘츄’를 지으면서 순록 떼를 데리고 툰드라 지대를 떠돈다. 츄는 순록 가족을 이어 만든 큰 움막으로 겨울철에 바깥은 영하 수십 도로 추워도 츄 안에서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도 될 정도로 따뜻하다.



[그림 21] 네네츠인 가족과 전통 천막 츄<sup>24)</sup>

네네츠인에게 가장 중요한 동물이자 상징, 평생 떨어질 수 없는 존재는 바로 순록이다. 순록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중한 영양 공급원이고 순록 뿔과 가죽은 생계를 잇는 수단이다. 물고기도 네네츠인의 주요 식량 중 하나다. 매년 3~5월에는 비교적 큰 도시, 한국으로 치면 읍내나 면 소재지 같은 곳에서 순록 축제가 열린다. 민족 전통이 살아 있는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고 레슬링이나 씨름과 닮은 전통 격투기를 즐긴다.

[그림 22] 이반 이스토민<sup>25)</sup>

러시아 혁명 이후 네네츠인은 전통문화를 많이 잃었다. 현재는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산업 개발 등이 네네츠인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순록이 끌던 썰매는 스노모빌로 바뀌고 있고 유목민 중 도시에 정착하는 숫자도 늘어나지만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 외국이나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젊은 노동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가스나 석유개발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고 기본적인 습속과 문화도 달라 네네츠 전통 풍습과는 거리가 있다.

소련 정부가 유목민의 정주를 추진했고, 젊은 네네츠인은 국영 학교에서 러시아식 교육을 받으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잃기도 했으나, 네네츠 전통을 지키며 작품 활동을 지속해 소련에서 인정받는 유명한 작가들이 나오기도 했다. 콘스탄틴 판코프는 화가가 됐고, 유리 벨라는 네네츠인 최초의 작가로 유명하다. 시인이면서 작가인 이반 이스토민(1917~1988)은 이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작가회의 회원이 됐다. 1936년 이반 이스토민의 시 ‘순록’이 지역신문에 게재됐다. 이 밖에 레오니드 랍추이, 이반 유간펠리크, 로만 루민, 미쿨리 술긴, 프로코피 살티코프 등이 있다.



[그림 23] 야말-네네츠자치구 문화무26)

## 6. 대한 관계

야말-네네츠자치구와 한국의 교류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시나도, 군/구와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을 맺은 사례가 아직 없다. 이 지역에선 에너지 관련 사업이 가장 유망하지만 눈에 띄는 한국 기업의 진출 사례도 아직 없다. 다만 에너지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야말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노바텍(НОВАТЭК) 회사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쇠빙 LNG 선(쇠빙 액화천연가스운반선) 15척의 건조 수주를 따낸 것이 유일한 대형 프로젝트이다.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에너지 개발 사업은 극동, 동시베리아에 집중되어 있어 야말-네네츠자치구의 가스전 개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말-네네츠자치구에서 매우 중요한 야말-유럽 파이프라인(YEPP)을 보면 이 지역의 에너지 개발 사업이 주로 서쪽, 즉 유럽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야말-네네츠자치구 문장을 새긴 10코페िका 동전<sup>27)</sup>

물론 최근 수년간 야말-네네츠자치구와 한국 간에 경제 협력을 타진하는 몇몇 계기들은 있었다. 2009년 9월 주장수 한국가스공사(KOGAS) 사장

은 블라디미르 당시 푸틴 러시아 총리 초청으로 세계 11개 메이저 에너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야말반도 가스전을 둘러봤다. 주 사장은 살레하르트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미국 엑손모빌, 영국 로열더치셸 등 세계적인 석유 가스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 가스공사 사장이 초청된 것은 한국 기업의 참여에 대해 러시아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6년 1월 13일부터 16일 야말-네네츠자치구 공식 대표단이 첫 번째 쇠빙 LNG선 진수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때 진수된 쇠빙 LNG선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총 15척(약 5조 원 규모)을 수주한 ‘야말 LNG 프로젝트’의 첫 번째 배이다. 이 선박은 길이 299m, 너비 50m의 규모로 17만<sup>m</sup>의 LNG를 싣고, 2.1m 두께의 얼음을 스스로 깨면서 극지인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이다. 17만<sup>m</sup>의 LNG는 우리나라 전체가 이틀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기존 쇠빙선이 얼음을 타고 올라가 선박 무게로 부수는 반면, 야말 쇠빙 LNG선은 선박 자체가 가진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얼음을 직접 깨면서 항해한다.

이를 위해 얼음과 직접 부딪히는 선체 부분에 초고강도 특수 후판이 사용됐고, 안정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구현하기 위해 프로펠러가 360도 회전하며 전·후 양방향 운항이 가능한 포드 프로펠서(POD Propulser) 3기가 장착됐다. 얼음을 깨고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 선수(선박의 앞) 및 선미(선박의 뒤)에 적용됐다.

매서운 기후의 극지방을 운항하기 때문에 최저 영하 52도까지 견딜 수 있는 특수 강재가 선박 건조에 사용됐고 최고 수준의 방한처리 기술이 적용됐다. 선체 내·외부 곳곳에 열선 장치가 설치되고, 찬 공기의 내부 유입을 차단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선원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장비 작동이 가능하다.

진수를 축하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과 쇠빙 LNG선 첫 호선을 발주한 러시아 소브콤플롯(Sovcomflot)社 세르게이 프랭크(Sergey

Frank) 회장, 러시아 가스 기업 노바테크의 레오니트 미켈슨(Leonid Mikhelson)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기념행사를 했다. 프랑스(Total), 중국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등 야말 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의 주요 인사 50여 명도 옥포조선소를 직접 찾았다.

야말 프로젝트는 러시아 시베리아 북단 야말반도에서 생산된 LNG를 수출하기 위한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푸틴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 간 합의된 국가적인 프로젝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척당 3억 2,000만 달러에 달하는 쇠빙 LNG선 15척(총 48억 달러, 약 5조 원)을 모두 수주해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야말-네네츠자치구를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야말 LNG 프로젝트 외에도 북극 철도 건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또한, 야말-네네츠자치구의 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북극의 자연’ 사진전이 열렸고, 쇼요테이 야말(Сёётэй Ямал) 국립합창단과 자치구 민속 문화 센터(Окружной Центр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의 공연이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전통 북 공연이 있었다.

야말-네네츠자치구 대표단은 부산시 총영사인 보스트리코프(Востриков А. С.)와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의 부대사인 마살체프(Масальцев А. А.)와 미팅을 했다. 이들은 야말-네네츠자치구와 한국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해 논의했는데, 특히 사회적 영역(건강, 교육)과 경제 영역(주택 건설 및 기반 시설 개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16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한국의 대림 산업(Daelim Industrial) 대표단이 살레하르트시를 방문했다. 야말-네네츠자치구 구지사 드미트리 코빌킨(Дмитрий Кобылкин)과 부구지사 드미트리 아르튜호프(Дмитрий Артюхов)가 이들을 맞이해 야말-네네츠자치구의 투자 잠재력을 소개하고, 경제 성장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다.

외국 투자자들은 세계 시장에서 수요도가 높은 폴리머를 생산할 노보우

렌고이스키(Новоуренгойский) 가스 화학 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 이 제품의 소비율은 현재 연간 약 1.5%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능한 공동 사업으로서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인프라 프로젝트, 그리고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연료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2017년 6월 3일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쇠빙 LNG선의 명명식이 열렸다.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박노벽 주러시아 한국대사,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선명은 지난 2014년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프랑스 토탈사의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전 회장을 기리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따다. 토탈사는 야말 LNG 프로젝트의 투자사 중 하나이다. 3월에는 쇠빙 LNG선 건조의 마지막 관문인 빙해 운항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완벽한 쇠빙 항해 성능을 검증받았으며, 옥포조선소에서는 나머지 14척을 건조하고 있다. 2020년까지 이 배들을 모두 인도할 계획이다. 이 쇠빙 LNG선은 러시아 야말-네네츠자치구 사베타항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아시아와 북유럽 지역에 LNG를 운송할 예정이다.

최근 2021년 러시아 에너지 국영기업 노바텍은 제 2차 북극 LNG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선 8척을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게 각 4척씩 총 8척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제작에 착수하여 오는 2023년부터 선박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대삼호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 즈베즈다조선과 합작한 엔지니어링 업체 '즈베즈다-현대'를 설립하고, 아프로막스급 유조선을 건조중이다. 삼성중공업도 2018년 즈베즈다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했으며, 즈베즈다 조선소에 선박 기본설계 및 도면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등 전체적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Arc7' 등급 초대형 LNG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2035년까지 LNG 생산량을 연간 1억 4000만톤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용선 계약과 쇠빙선 발주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조선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된다.

에너지를 제외하면 중고차 사업이 눈에 띈다.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버스 수입사인 코리아디젤(КОРЕЯ-ДИЗЕЛЬ)은 한국이나 일본산 버스를 수입해 러시아에 판매하는데 야말-네네츠에 판매망(딜러)이 있고 홈페이지에 이를 소개하고 있다.

에너지를 제외하면 중고차 사업이 눈에 띈다.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버스 수입사인 코리아디젤(КОРЕЯ-ДИЗЕЛЬ)은 한국이나 일본산 버스를 수입해 러시아에 판매하는데 야말-네네츠에 판매망이 있고 홈페이지에 이를 소개하고 있다.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2021년 11월 3일~5일까지 울산시에서 제 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주제는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이다. 한러지방협력포럼은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실질협력과 교류의 장으로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17개 지자체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북극지역 등 18개 지자체에서 참가하였다. 이 중 북극지역은 무르만스크주, 네네츠자치구, 야말로-네네츠자치구 등 7 곳이 참여하였다. 포럼은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을 비롯해 남북러 삼각협력을 위한 경제협력 섹션, 북극항로 물류섹션, 문화예술 세션 등으로 진행되었다.

본 포럼에서 야말 사진작가들의 작품전시가 열렸다.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독특한 자연, 북극광과 북부 자연풍경, 원주민들의 삶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또한 툰트라와 북부 우랄산맥, 강, 호수 등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영상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행사 내 부스에 QR코드를 설치해 야말-네네츠 자치구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였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현재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관광업을 제시할 수 있다. 에너지 개발 외에도 야말-네네츠의 잠재력 중 하나가 관광자원이다. 빙하와 만년설, 그 위를 뛰어다니는 순록과 원주민 생활상은 이국적인 모습으로 관광객의 흥미를 돋우는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주요 관광자원이다.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원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야말반도가 대표적이다. 때 묻지 않은 툰트라 자연환경은 쉽게

보기 힘든 천혜의 관광지이다. 순록 축제를 비롯한 현지 문화도 독특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순록체험, 툰드라체험 등의 관광 상품을 한국인에게 맞게 개발한다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고 교류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불편한 도로, 철도 등 인프라는 숙제로 남는다. 따라서 한국과 야말-네네츠자치구의 관계 강화와 비즈니스 다양화에는 한국 정부나 기업 외에 러시아 연방정부와 자치구 정부, 지역 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5] 살레하르트 북극 경계 상징탑<sup>28)</sup>

## 7. 결론

러시아 북극에서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자연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하 자원을 채굴하는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야말-네네츠자치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북극 공간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북극 공간 개발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사회·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러시아인이 지금의 야말-네네츠자치구 지역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11세기경부터 이곳의 주요 원주민이었던 네네츠인이 러시아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인과 네네츠인은 그 후 격랑의 역사를 함께 헤치며 오늘에 이르렀다. 20세기 전반기에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겪으며 이 지역은 새로운 변화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변화는 1950~60년대 이곳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탐사가 이루어지면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오늘날 야말-네네츠자치구는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천연가스 산지로 탄생했다.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천연가스와 석유는 생산량과 매장량 면에서 러시아 최대 수준이다. 연간 러시아 전체 석유생산량의 10% 안팎, 가스 생산량의 85~90%가량을 채굴한다. 이 지역의 가스 생산량은 전 세계의 23%에 이른다. 현재 야말-네네츠자치구의 최대 경제 현안은 야말 LNG 프로젝트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시장 개혁기에 러시아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도 야말-네네츠자치구에서는 인구의 자연증가 현상이 나타났고, 국제이주민이 꾸준히 유입되었다. 다만,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유출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곳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높고 극빈

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긍정적 현상이지만, 빈부격차가 크다는 점은 부정적 현상이다. 종합적인 삶의 질은 러시아 지역 중 중상 수준에 해당하는데, 세부 분야별로 보았을 때 소득 및 소비 수준, 거주 안전, 인구 상황, 경제 발전 등 몇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의 삶의 질 수준은 낮은 편이다. 특히 생태 기후와 영토 개발의 측면은 최하위에 해당한다. 생태기후가 좋지 않은 것은 이곳이 인간이 거주하기에 척박한 자연환경일 뿐 아니라 자원 채굴 산업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된 곳이 많기 때문이며, 영토개발이 덜 된 것은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북극 개발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와 야말-네네츠자치구 정부의 지원 속에서 네네츠인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민족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경제적인 이윤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흐름에 맞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신을 지켜낼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는 쇠빙 LNG선을 야말 LNG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역할로 야말-네네츠자치구와 경제 협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서 이 지역의 사회 문화를 보존하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재생산하는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상호 신뢰 속에서 더욱 끈끈하게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견실한 가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러시아 경제주간지 「엑스페르트」, 2010. 12. 20-26, No. 50
- “‘빅 3’ 에너지 공기업 CEO 해외프로젝트에 ‘올인’” (한국경제, 류시훈  
기자, 2009년 10월 11일)
- “얼음 녹은 북극, 자원 신대륙을 잡아라” (조선일보 기획기사, 2010년  
12월)
- 최우익, 「북극의 별 네네츠: 툰드라와 순록, 그리고 석유의 땅」,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 한종만, 김정훈, 김태진, 「러시아 우랄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이해」,  
시베리아총서2, 배재대학교 출판부, 2008
- 홍완석 편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이해-21개 공화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 출처

- 1) [https://ru.wikipedia.org/wiki/Ямало-Ненецкий\\_автономный\\_округ#/media/File:Map\\_of\\_Russia\\_-\\_Yamalo-Nenets\\_Autonomous\\_Okrug.svg](https://ru.wikipedia.org/wiki/Ямало-Ненецкий_автономный_округ#/media/File:Map_of_Russia_-_Yamalo-Nenets_Autonomous_Okrug.svg)  
(검색일: 2018.01.15)
- 2) [https://ru.wikipedia.org/wiki/Ямало-Ненецкий\\_автономный\\_округ](https://ru.wikipedia.org/wiki/Ямало-Ненецкий_автономный_округ)  
(검색일: 2018.01.15) 외에 각종 자료 참조
- 3) [https://ru.wikipedia.org/wiki/Ямало-Ненецкий\\_автономный\\_округ#/media/File:Flag\\_of\\_Yamal-Nenets\\_Autonomous\\_District.svg](https://ru.wikipedia.org/wiki/Ямало-Ненецкий_автономный_округ#/media/File:Flag_of_Yamal-Nenets_Autonomous_District.svg)  
(검색일: 2018.01.15)
- 4) [https://ru.wikipedia.org/wiki/Ямало-Ненецкий\\_автономный\\_округ#/media/File:Coat\\_of\\_Arms\\_of\\_Yamal\\_Nenetsia.svg](https://ru.wikipedia.org/wiki/Ямало-Ненецкий_автономный_округ#/media/File:Coat_of_Arms_of_Yamal_Nenetsia.svg) (검색일: 2018.01.15)
- 5) 필자 촬영
- 6) 필자 촬영
- 7) 필자 촬영
- 8) 필자 촬영
- 9) 필자 촬영
- 10) <http://xn--80aealotwbjpid2k.xn--80aze9d.xn--plai/power/governor/>  
(검색일: 2018.01.15)
- 11) 필자 촬영
- 12) [http://www.zsyanao.ru/about/mps/shestoy\\_sozyv/](http://www.zsyanao.ru/about/mps/shestoy_sozyv/) (검색일: 2018.01.15)
- 13) 자치구 의회 홈페이지 [http://www.zsyanao.ru/about/mps/shestoy\\_sozyv/](http://www.zsyanao.ru/about/mps/shestoy_sozyv/)  
(검색일: 2018.01.16)
- 14) <https://de.yanao.ru/presscenter/lectures/189/> (검색일: 2018.05.04)
- 15) 1990~2009년까지는 다음 자료 참조. Росстат(2012)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С. 54-55.  
2010~2016년까지는 다음 자료 참조. Росстат(2017)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С. 37-38.
- 16) 필자 촬영
- 17) [https://ru.wikipedia.org/wiki/Население\\_Ямало-Ненецкого\\_автономного\\_округа#cite\\_note-пер.2010-43](https://ru.wikipedia.org/wiki/Население_Ямало-Ненецкого_автономного_округа#cite_note-пер.2010-43) (검색일: 2018.05.28.)
- 18) 필자 촬영
- 19) 필자 촬영
- 20) Росстат(2017)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С. 546.
- 21) <http://www.salekhard.org> (검색일: 2018.01.15)
- 22) 필자 촬영
- 23) 필자 촬영
- 24) "The Nenets and Khanty of Yamal Peninsula,"  
<http://arcticcircle.uconn.edu/NatResources/nenets.html> (검색일: 2011.04.27)
- 25) [http://yamal.ru/ksku\\_t\\_e.htm](http://yamal.ru/ksku_t_e.htm) (검색일: 2018.01.15)
- 26) 필자 촬영
- 27) <http://cis-coins.com> (검색일: 2018.01.15)

28) 필자 촬영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NRF-362-2009-1-B00005)의 지원으로 출간됩니다.

## 러시아연방주체 개관 시리즈: 야말-네네츠자치구

저 자 | 최우익

발행일 | 2018년 8월 31일

발행인 | 강덕수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주 소 |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전 화 | 031-330-4852

이메일 | irs@hufs.ac.kr

출판팀 | 도서출판 **참** 글

등록 제 7-0844호

(02)968-5454. ichamgle@hanmail.net

